



[라이프]  
이색 재료에 다양한 토핑  
'빙수전쟁' 막 올랐다  
너

[메트로]  
휴전선 없는 한반도  
北 경제개방 어디로?  
L7



나이지리아 출신 '사무엘' 씨... 114세 '이용금' 할머니...

## 남녀노소 국적불문, 모두가 즐긴 '민주주의 축제'

이번 6·13 지방선거는 남녀노소와 국적을 초월한 '민주주의 축제'로 기록됐다. 이날 충북 옥천에선 114세 최고령 유권자 이용금 씨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거친 그가 투표함 앞에 선 모습이 공민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이번 선거는 반 세기만에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세계화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서울 이태원에서는 나이지리아 출신 공장 노동자 우구오마 오빈나 사무엘(52) 씨가 영주권에 따라 이번 축제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 각종 스캔들이 뒤얽힌 선거에서 유권자가 선택을 내리는 모습을 한데 모아봤다. (편집자주)



- ❶ 13일 오전 강원 춘천시 봄내초등학교에 마련된 석사동 제6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줄지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 ❷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명동 제1투표소에서 수녀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❸ 13일 충북 옥천군 청산면 제2투표소에서 올해 113세 된 이용금 할머니가 투표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1904년 10월 6일생이다.
- ❹ 13일 강원 양양군 서면복지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인근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❺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나이지리아 출신의 공장 노동자 우구오마 오빈나 사무엘(52) 씨가 투표하고 있다.
- ❻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엄마 대신 아이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 ❼ 13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에 마련된 대정읍 제1투표소에서 주민들이 줄을 서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